

“비선 인사개입” “사실무근” 설전

광주시의회 임시회 현안 질의서 공방

시·도상생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 처리 관심

광주시의회는 9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인사 난맥상에 도마에 올랐고, 이를 놓고 시의원과 운영현 시장이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또 이번 회기 중 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 인사 난맥상 공방=광주시의회 임택(동구 1)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2K’로 지칭되는 비

선 실제 개입에 따라 공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영현 시장은 “비선은 있어 서도 안되고, 있지도 않다”고 맞서는 등 한 동안 설전이 벌어졌다.

임 의원은 “최근 뇌물 공여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 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극명한 사례로 외부 압력이 아니면 이뤄지기 힘든 비사실적 인선”이라고 따졌다.

행정부시장 인선 지연에 대해 지적도 제

기됐다.

임 의원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시정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시장 인선 문제가 5개월째 마무리되지 않아 공직사회가 불안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 가동=시의회는 이날 이정현 위원장과 임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보현·박춘수·심철의·유정심·이은방·전진숙·조세철 의원 등 총 9명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를 구성했다. 인사특위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친 뒤 임명때까지 활동하게 되며, 인사검증에 대한 공정성 확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소견 정리,

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경과보고서 채택 등 엄정하게 실시될 예정이다.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 주목=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중 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가 오는 17일 전남도가 제출한 ‘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시·도의 대표적인 상생과제인 연구원 통합이 지지부진한 실정에서 전남도의회에서 통합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임시회에 통합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광주시의회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자 노트

시·도 상생, 기득권 내려야 성과



윤현석 정치부 기자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였다.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호남 소외가 계속되고 그로 인한 세 위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으며, 지역민도 이를 절감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광주·전남은 과거 기득권에 안주했고,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하기보다는 서로 배척하고 외면하면서 울타리를 견고히 하는데만 지중했다.

그렇게 되자 유력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후보가 상생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았고, 당선되면서 시·도가 비로소 소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며 호남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도 직원들이 모여앉아 언급된 과제의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시장과 지사가 자주 만나 같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하는 모습은 낯설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운영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가 송하진 전부지사 만나 호남권정책협의회를 복원하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임원진과 함께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지역 기여’를 당부하는 모습은 시도민만이 아니라 임원진에게도 감명을 주었다.

최근 양 시·도의 상생과제로 언급됐던 발전연구원 통합 문제와 관련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07년 각기 다

른 여건을 갖고 있는 시·도가 각자의 연구원을 설치해야 했다며 나눠 가져간지 8년만에 다시 합치자는 주장에 반론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의 현재 자원과 문제를 찾아내 미래를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응할 논리를 찾아 근거를 대는 것이 주임무인 연구원이 그동안 양 시·도가 맡긴 과제만 처리해내는 ‘보고서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광주·전남이 아니라 광주만, 전남만 연구대상으로 삼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다른 시·도의 연구원은 분량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8년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나뉘던 ‘기득권 논리’가 있다. 과거 논리로, 새롭게 시도되는 상생을 재단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연구원 통합과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찬반의 논쟁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연구원의 비전이 제시됐어야 했지만, 결과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난무한 채 끝났다.

차치하고, 연구원 통합이 사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과연 상생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 전제인 것이다. 상생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며, 기득권을 내놓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며, 함께 할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chadol@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광주와 전남·북 시도의 의정단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의 의정단협의회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광주 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정부지원 등 지역 현안 5개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전·현 국무위원 68% 부동산 의혹에 연루”

세정지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도덕적 잣대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 실시한) 지난 2년간 전·현직 국무위원 전수조사 결과, 68%가 투기·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고, 53%는 세금 문제, 37%는 논문표절, 32%는 자녀의 병역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우기준 해양수산, 유일호 국토해양,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장관 후보자들 또 “죄송” 청문회

유기준·유일호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송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업무 수행 능력을, 야당은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유기준 후보자의 경우 자신과 가족의 위장전입 전력과 도마 위에 올랐다.

세정지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윤전 면허를 쉽게 따고자 경기도로 위장전입했고 배우자와 딸은 좋은 학교로 옮기고자 부산 내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고 유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고

개를 속였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유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로펌에서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긴급 방제 비용 수억원을 선수가 아닌 국가가 모두 배상하게 하는 내용의 소송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사고 당시 유 후보자는 국회에 구성된 피해보상 특위에 유관 위원회인 농식품위 소속 의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최근에 알게 됐다. 잘 몰랐던 일”이라고 답했다.

유일호 후보자의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세정지연합 김상희 의원은 “조세 전문가로 국회에서 탈세방지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6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4억원으로 축소신고해 취득세 764만원을 탈루했다”며 “본인이 늘 주장하던 조세징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두 후보자 모두 국회의원 신분인 까닭에 여야 의원들은 “10개월짜리 장관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내각에 남아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불출마 여부를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구원 통합 시·도의회 차원높은 판단 기대”

이낙연 지사 토론회서 협력 강조

이낙연 전남지사가 9일 오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과 관련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조례안을 대폭 보완해서라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방식이나 시기 등 연구원 통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도의회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실국장 토론회에서 “최근 시·도 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통합을 위한 보완과제 이지 통합 저지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이 마흡하다면 그것을 대폭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포함해 시·도의회 의원님들이 차원 높은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생 협력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도 언급했

다.

이 지사는 “상생협력에 과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생은 긴 과정이고 숱한 난관을 견디면서 쉬지 않고 가꾸어 가야하는 과정으로 연구원 통합은 그런 수많은 (상생)과제 가운데 하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통합 문제는 민선 6기 들어 지난해 8월 이 지사와 운영현 광주시장이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연내에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뒤 불거졌으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관련 조례개정안을 의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답보상태다.

이 지사는 또 이날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협조체제 구축, 4월16일 세월호 1주년 준비 철저 등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